

자료제공 : 2024. 3. 25.(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02-2133-3670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7쪽

자원순환정책팀장

이소연

02-2133-3672

서울시, 환경부경기도인천시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대체매립지 찾는다

-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3차), 3월 28일~6월 25일 90일간 진행
- 1·2차 공모비 부지면적 90만 m^2 이상으로 축소, 특별지원금 3천억원으로 대폭 확대
- 충분한 녹지 확보·다양한 주민편의시설 설치해 지역주민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 대체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3월 28일(목)부터 6월 25일(화)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25일(월)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후 환경부가 3월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확정했다.

*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참여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

□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 첫째,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 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 둘째,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1·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매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 등

□ 셋째, 응모 문턱을 낮추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시*와 달리 90만 m^2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 (1차 공모 시) 부지 면적 220만 m^2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톤/일),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 포함

* (2차 공모 시) 부지 면적 130만 m^2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톤/일),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포함

-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자원순환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 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과거의 수도권매립지와 미래의 수도권자원순환공원(예시) 비교.
 2.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책임자	과 장	박찬용	(044-201-7400)
		담당자	사무관	김종민	(044-201-7407)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책임자	과 장	정미선	(02-2133-3670)
		담당자	사무관	이소연	(02-2133-3672)
	인천광역시 매립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순구	(032-440-5661)
		담당자	사무관	신규설	(032-440-8271)
	경기도 자원순환과	책임자	과 장	서진석	(031-8008-3520)
		담당자	사무관	김일수	(031-8008-426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조정처	책임자	처 장	류돈식	(032-560-9355)
		담당자	부 장	구자한	(032-560-9356)

구 분	과거의 수도권매립지	미래의 수도권자원순환공원(예시)
시설 외형	 <p>☞ <u>대단위 부지(1,600만㎡, 축구장 2,300개 규모) 매립 기능에만 충실(93년)</u></p>	 <p>(예시) 포항 에코빌리지 조감도 ☞ <u>소규모(90만㎡), 공원 같은 주민 친화적 복합 공간</u></p>
매립 장면	 <p>☞ <u>개활 공간에 종량제봉투(유기성물질 혼합), 건설폐기물 등 비체계적 매립(00년)</u></p>	 <p>(예시)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 <u>격리 공간에 불연물(무기성물질)을 포대에 담아 체계적 매립·관리</u></p>
매립 폐기물	 <p>☞ <u>종량제봉투(유기물 혼합 가능), 재활용 가능 목재 등 가연물(침출수 多)(97년)</u></p>	 <p>☞ <u>소각·재활용 후 불연물 (악취 無, 침출수 少)</u></p>

※ 미래의 수도권자원순환공원(예시)는 구현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임. 국내사례 중에서 유사한 시설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시설 설계 및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1. 부지 면적을 90만㎡로 줄인 이유는?

-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폐기물 관리정책의 변화로 대체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하지 않음
 ※ 소각·재활용 후 협잡물 및 잔재물만 매립
- 유휴 부지를 포함해 대규모로 조성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지자체의 응모 문턱을 낮추기 위함

2. 응모 이후 절차는?

- (입지 확정) 선정된 기초지자체 주도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타당성 및 주민 수용성을 최종 검토
- (시설 공사) 검토 결과 매립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하면,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영향 최소화로 시설 조성

< 응모 이후 절차 >



3. 주민편익시설 조성은?

- 주민 선호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폐에너지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함

※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조성

- 그외에도 매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하여 주변영향지역(반경 2km 이내) 가구당 지원 등 가능

< 주민편익시설 사례 >

물놀이장
[하남 유니온파크]



야구장
[평택 에코센터]



골프교실
[서울 강남자원회수시설]



실내 체육시설
[인천환경공단 송도스포츠파크]

